

조선산업, 선진현장을 가다

④ 현대삼호중공업

인건비 4,000억... 전남경제 활력소



현대삼호중공업은 평균 40세 미만의 유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 전망이 큰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모습.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이 글로벌 조선선문기업으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현대삼호중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올 초 선업계 최단기간인 7년 2개월 만에 2천만D/T(재화중량톤수) 선박 건조기록을 수립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협력사 발주 금액도 2,600억 2009년까지 물량 확보...글로벌 넘버 원 꿈꿔

현대삼호중의 수주량은 2000년 15억2천200달러, 2001년 7억7천700만달러, 2002년 8억9천300만달러, 2003년 22억1천300만달러, 2004년 23억8천700만달러, 2005년 31억3천6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인 48억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이러 참단설비시설에 903억원을 투입, 올해 수주량 46억3천700만달러에 2조6천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수주목표 46억 가운데 1월에만 12억을 수주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총액만 4천억원>=직접 고용인원은 지난 99년 3천300여명에서 현재 9천800여명으로 늘어났다. 직원가족과 45개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조선관련 인원은 5만여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건비 총액은 4천107억원, 광주·전남지역 협력사 발주금액도 2천6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담한 국세는 262억원, 지방세는 56억원이다.

이와 함께 50억원을 투자, 국제 규격의 천연잔디축구장 2면을 조성해 영암군에 기증했는가 하면 지역내 20여개 사회복지시설 및 2개의 자연부락과 자매결연해 상생분위기를 쌓아가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오늘부터 총부채비율따라 주택대출 금리·한도 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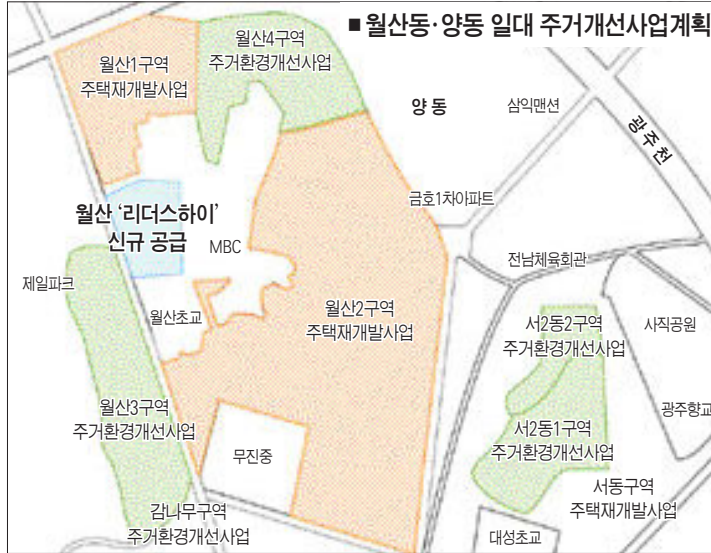
광주 월산·양동 고급 주거지 된다

"수상한 모든 금융거래 신고"

이달부터 주택투자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대출금리와 대출한도도 차등화된다.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에게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다. 부채비율은 신청대출금을 포함한 총 부채금액을 증빙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광주 남구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로 꼽히는 월산동과 양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월산동과 양동 일대는 대주건설과 제주주택건설이 최근 리더스하이 아파트를 공동시공, 분양에 들어간 것을 비롯 내년이후에도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 사업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내년 8월 월산 1·2구역 등 9곳 주거 개선·재개발 제주주택 '리더스 하이'로 뉴타운 효과 선점 나서

금융정보분석원 의무화 추진 방안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천만원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FIU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다.

광주·전남 기업 이달에도 자금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기 및 자금사정이 3월에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BSI

는 각각 77과 66으로 전월에 비해 8포인트씩 하락했다. 2월 자금사정BSI도 전월에 비해 제조업이 82에서 73으로, 비제조업이 86에서 76으로 악화됐다.

동, 서2동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등 총 9곳에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사실상 월산동과 양동 주변의 모든 주거단지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으로, 기존 '노후 주거지'의 이미지를 말끔히 털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주택건설 최영진 사장은 "향후 월산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수요자들의 투자자기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주건설과의 공동시공을 통해 고품격 주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광주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국정원 광주지부 보안 지도 국가정보원광주지부는 지난 1일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보안지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말까지 관내 17개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보안지도도를 실시해 문제점과 취약점을 진단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Advertisement for 'Huangshang' (黄土)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rick and promotional text about quality and price.

Advertisement for 'Jeonil Automatic Car Wash' (전일자동차용품백화점) with a list of services and prices.